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인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장 1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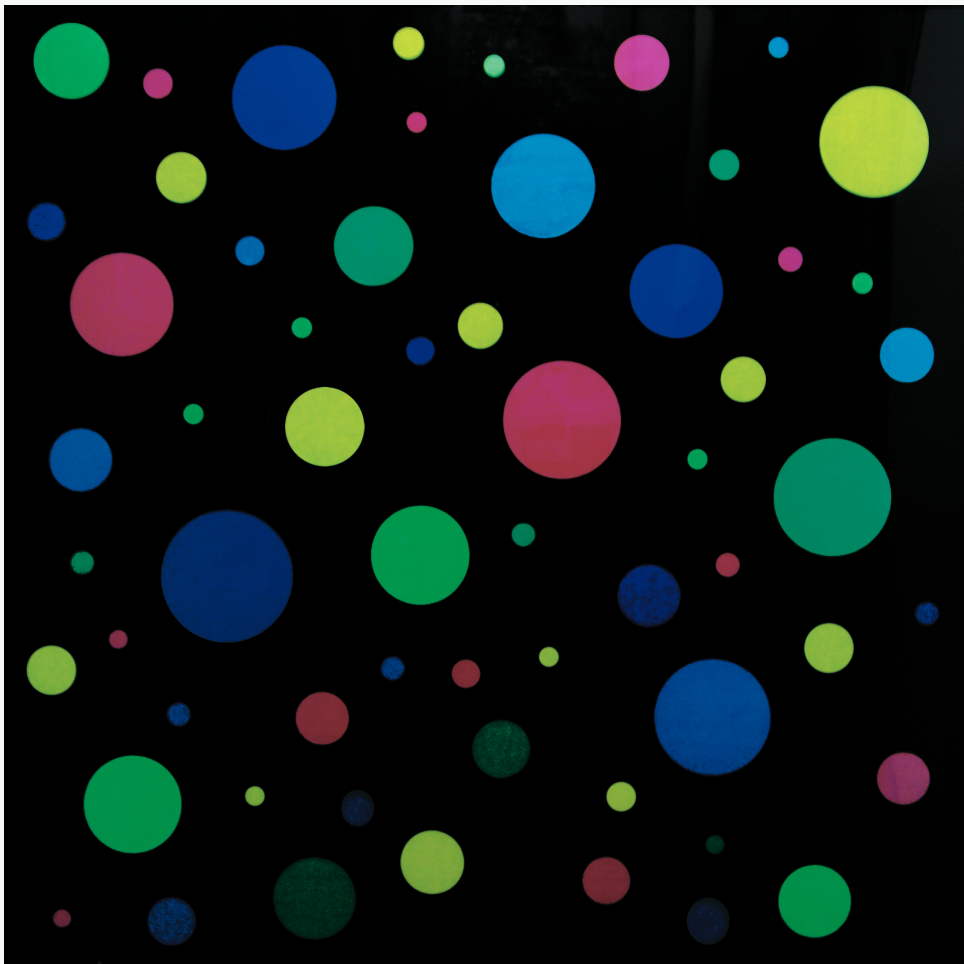
교 훈  
진리 · 창조 · 봉사

# Library News

건학이념  
기독교 정신의 구현

제16호 2009년 12월 도서관 소식 (반년간) DONGSEO UNIVERSITY LIBRARY NEWS 발행인 : 박동순 / 발행처 : 민석도서관 T. 051-320-2065

## 갤러리가 있는 도서관



〈Stars Eowa〉 Yayoi Kusama

Julian Opie



〈Ann Dancing in a Red Dress.1〉



〈Ruth Walking in Jeans〉

1층 중앙로비부터 시작하여 계단을 따라 멋진 그림과 조각들이 도서관을 가득 채우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한려수도(전혁림, 서양화), 에너지(김문규, 조각), 커피 한잔의 여유(안윤모, 서양화), Going Home(정재호, 서양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성태진, 서양화), Stars Eowa(Yayoi Kusama, 아크릴), 십자가(구자현, 소조), 망향(김정희, 조각), 한국적풍물 1,2(전혁림, 서양화), 신세계를 위하여, 화합을 위하여(이성자, 서양화), Upper East Side Glacier(Marc Quinn, 서양화), Ann Dancing in a Red Dress.1, Ruth Walking in Jeans (Julian

Opie), 그대의 창(양형규, 조각), 소나무(배병우, 사진), 백두산 천지(사진), 평안대교(사진), 김경옥 조각, 해방(송혜수, 서양화), 꿈(김정혜, 조각), 휴식(오순환, 서양화) 등이 있다.

그리고 1층 U-갤러리와 4층 로비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동서 학원 구성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정서함양과 문화생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

세계의 아름다운 도서관 사진전, 독도사진 및 도서전시회, 사진 사랑동호회 사진전(첫 발자욱), 동서가족 아름다운 캠퍼스 수상작 전시회, 이단이란? 도서 및 자료 전시, 외국도서전시회 등을 개최하였다.

## 지역인사 칼럼

## | 책 읽는 사회로 만들려면

주례제일교회  
백요한 목사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까? 이전에 발표된 설문 조사에 의하면 한 달간 책을 읽는 권수는 평균 1.3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6.6권, 일본 6.1권, 프랑스 5.9권, 중국 2.6권 등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나마 평균 독서량을 채운 것은 학생들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도 성인이 되면 책을 놓아버린다. 고학년이 될수록 책 읽는 권수도 점점 낮아진다. 초등학생이 연 평균 43권을 읽는데, 중학생은 26권, 고등학생 22권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입시와 사교육이 독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 중에는 전공 서적 이외에 사회 과학책이나 사상서 1권 제대로 읽는 이들이 드물다. 대학 교재를 제외하면 사회 과학책 출판이 거의 사라졌을 정도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책 읽기는 입시를 위한 시험공부처럼 되어버렸다. 한 번도 책 읽기의 즐거움과 맛을 보지 못한 채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다. 우리 국민들 중에 도서관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 부실한 독서 문화는 정보화 사회를 떠받쳐야 할 지식 경쟁력 부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라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책을 읽지 않게 되는 것일까? 해마다 정부는 '국민독서실태'라는 것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올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시민들의 절반 이상이 시간이 없거나, 책값이 부담이 되어 책을 읽지 못했다고 답했다. 책을 읽기 싫어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 '못 읽는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설문 조사에 응한 사람들만의 견해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 시민의 생각이라면 그 까닭을 분석해서 채워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여건이 되지 못해 읽지 못하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손에 책이 잡히도록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독서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개선해야 한다.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독서는 즐거움, 인격 수양, 그리고 지식과 정보 습득

이라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우리 사회는 어느 때부터인가 즐거움이나 인격 수양은 사라지고 오직 지식과 정보만 이야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독서를 휴식과 즐거움이 아니라 출세와 성공을 위한 과업처럼 여기는 분위기다. 독서를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책 읽는 즐거움은 사라진다. 이것은 책 읽는 습관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독서 캠페인이라는 구호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독서 정책을 펴는 것이다. 독서 정책의 가장 좋은 대안이 도서관 건립이다. 도서관은 정보·교육·문화가가 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다. 도서관을 통해 쉽게 사람들은 책과 만날 수 있다. 설문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현실적으로 책값이 부담이 되어 못 읽는다면 지역마다 많은 도서관들을 세워 책을 빌려주어 사람들의 손에 책이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몇 년 전 모 방송사의 인기 프로그램인 '느낌표'에서 책 읽는 운동을 펼치기 위해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프로젝트를 세워 실천했던 일이 있었다. '책, 책을 읽읍시다'라는 모토로 도서관이 들어서지는 해당 자치 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느낌표에서 건물을 지어주는 프로젝트였다.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없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고 방송사가 먼저 뛰어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덕택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세워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어린이들이 책을 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게 된다.

최근 부산의 어떤 지역에서는 도서관 건립을 위해 2007년 1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1억 원을 목표로 모금을 시작했는데, 1억 6천 여 만원을 모금한 일이 일어났다. 아이들의 돼지 저금통, 할머니의 쌈짓돈, 아버지의 비상금도 모두 모았다고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지역마다 계속 일어난다면 도서관 건립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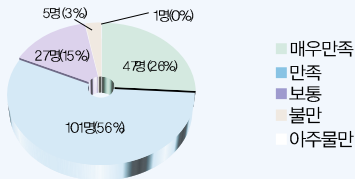
밖을 나가면 쉽게 도서관을 볼 수 있는 환경,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책과 가까워지게 하는 길이 아닐까? 독서 환경과 인프라를 만들려면 인식의 전환과 이러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부산이 이 일에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손에 잡고, 독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사회가 된다면 이 사회가 더 풍요로워지게 될 것이다.

## 도서관 이용 만족도 조사

민석도서관에서는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매년 도서관 이용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2009년 11월 2일에 도서관이용자 181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만족도와 개선 사항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1. 도서관 이용 만족도는 “매우만족” 47명(26%), “만족” 101명(56%), “보통” 27명(15%), “불만” 5명(3%), “매우불만” 1명(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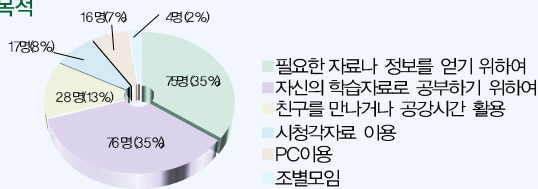
1 도서관 이용 만족도



2.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은 “자신의 학습자료로 공부하기 위하여” 76명(35%),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얻기 위하여” 75명(35%), “친구를 만나거나 공간시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28명(13%),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17명(8%), PC를 이용하기 위하여 16명(7%), “기타(조별모임)” 4명(2%) 의 순으로 나타났다.

※ 중복응답 가능

1 이용 목적



### 3. 건의사항

- 시험기간에 자리 정리
- 도서구입 확대
- 프린터 수 확대
- 책이 제자리에 없음, 학생증 없이 출입 허용
- 도서구입 신속처리, 프린터 고장
- PC 확대
- 개관시간 연장, 인터넷 속도 개선, 주말 개관시간 연장, 친절한 안내, PC 느낌
- 1층 밖 정숙 지도, 가습기 비치, 공기정화기 비치, 냉·난방기 지속적 가동, 대출권수 확대, 2인 스터디룸 설치, 따뜻한 물 공급, 시험기간 열람석 확대, 리모콘 오작동 방지, 도서관 이용방법 안내, 밝은 조명, 책을 깨끗이 사용, 소음이 심함, 청결 유지, 최신 DVD 비치, 캐럴추첨방식 개선, PC바이러스 확인, 화장실 환기, 화장실 휴지, UCC룸 확대

### 4. 분석

도서관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이용만족도'에서 '보통'이상이 97%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용목적에 있어서도 2008년에는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얻기 위하여”가 27.6%였으나 올해는 35%로 7.4% 증가하였다.

민석도서관에서는 계속적으로 학생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학술정보 서비스 확대

### ▶ 2009년 민석도서관 온라인 도서관 이용교육 콘텐츠 구축

민석도서관에서는 신입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이용자 교육을 매년 초에 실시하여왔으며, 보다 나은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온라인 도서관 이용교육 콘텐츠를 구축하여 11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동서대학교 도서관홈페이지 좌측 상단의 민석도서관 온라인 이용교육 배너를 이용하여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온라인 도서관 이용교육 콘텐츠를 구축을 통하여 동서대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학습과 정보 활용 능력을 함양하고,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1) 온라인 도서관 이용교육 구성

도서관소개	자료이용안내	서비스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소개</li> <li>• 개요</li> <li>• 층별 안내</li> <li>• 1층</li> <li>• 2층</li> <li>• 3층</li> <li>• 4층</li> <li>• 5층</li> <li>• 6층</li> <li>• 지하2층</li> <li>• 지하1층</li> <li>• 기타 시설</li> <li>▶ 자료이용 안내</li> <li>▶ 서비스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소개</li> <li>▶ 자료이용 안내</li> <li>• 소장자료 검색</li> <li>• 전자자료 검색</li> <li>• 외부기관 자료검색 및 이용</li> <li>▶ 서비스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소개</li> <li>▶ 자료이용 안내</li> <li>▶ 서비스 안내</li> <li>• My Library</li> <li>• 개인정보 관리</li> <li>• 대출연장/초회</li> <li>• 도서구입신청/초회</li> <li>• My Search List</li> <li>• 도서관 서비스</li> <li>• 기타 안내</li> </ul>

### 2) 도서관 안내

- ① 도서관 소개
  - 민석도서관의 역사와 설립취지 등 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 ② 층별 안내
  - 층별시설과 소장자료, 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다.

# 학술정보 서비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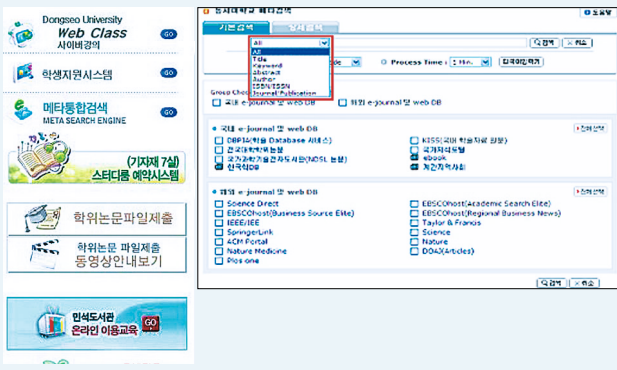
## 3) 자료이용안내

- ① 소장자료검색
  - 자료유형별 안내, 자료검색, 자료이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전자자료 검색
  - 메타검색, 해외저널통합검색, e-book, 전자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등이 있다.
- ③ 외부기관자료 이용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 국회도서관 이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서비스 안내

- ① My Library
  - 개인정보관리, 대출연장/조회, 도서구입신청/조회, My search List 등을 담고 있다.
- ② 도서관 서비스
  - 상호대차/원문복사, 서가에 없는 책 찾기, 우선정 리요청, 그룹스타디움 신청, 학위논문파일 제출, 지역사회 열린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기타 안내
  - 도서관행사, 기증안내, 도서관 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 주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 메타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 1) 메타통합검색이란

동서대학교에서 구독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자료들의 검색사이트가 등록되어 있어,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유형별로 통합 검색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2) 내용

고가의 해외저널정보, 다양한 자체 소장정보, 관심정보를 한번에 검색하고 추적할 수 있으므로, 메타통합검색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정보검색을 위한 소요 시간을 단축함은 물론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3) 이용방법

동서대학교 도서관홈페이지 좌측 상단의 메타통합검색 배너를 이용하여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Quick Search, Advanced Search, Quick Group Check, Search With-in Result & Cluster 순서로 이용할 수 있다.

### ▶ 웹DB DBPIA 국내학회지 서비스 실시

도서관에서는 학술콘텐츠 확충을 위해 웹DB DBPIA 국내학회지 서비스를 2009년 9월부터 실시하였다. 웹DB DBPIA 국내 학회지에는 1998년부터 구축한 전 주제분야의 학술관련 저널 총 1,000여종을 볼 수 있으며 도서관홈페이지 메인화면 DBPIA배너나 도서관 홈페이지/전자도서관/DBPIA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 ▶ 대출 중지자 특별 해제 캠페인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책을 기증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도서관과 다시 친구해요”라는 주제로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서연체자 및 대출중지자를 대상으로 특별 해제 캠페인을 벌였다. 대출중지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는 도서관을 방문하여 해제 신청하면 대출중지가 해제되며, 2-6개월일 경우 도서 1권, 6-12개월이면 도서 2권을 기증하면 해제 혜택을 받도록 하여, 256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고, 218권의 자료가 기증되었다.

### ▶ 학술정보 안내 서비스 강화

- 2009년 도서관 기증 안내 실시(9/15)
- 상호대차 원문 복사서비스 이용 안내 실시(9/28)
- 교사자료실 이용 안내 실시(10/5)
- 민석도서관 실 안내(10/8)
- 메타통합검색 이용 안내 실시(10/20)





## 시설 및 환경개선

### ▶ U-Zone 내 위성 부스 설치

글로벌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도서관내 국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위성 부스를 신설하였다.



### 〈시청가능 방송〉

CNN, NHK World, BBC World, CCTV(4,9), 아라방 TV

### ▶ 민석도서관 중앙 로비 대형 트리 설치 (11/10)



### ▶ 민석도서관 4층 로비 휴게공간 마련 (9/24)



### ▶ 제1열람실 휴게마당 야외용 의자 설치 (10/29)



### ▶ 인문사회관 6층 자유 열람실 휴게공간 마련 (8/15)



### ▶ 그린홀 자유열람실 카펫 설치 (10/30)



### ▶ 인문사회관 자유열람실 카펫 설치 (10/30)



## 각종행사

### ▶ 제25회 작가와의 만남

제25회 작가와의 만남은 “책 읽기의 즐거움”의 작가 다이애나 홍님을 모시고 “나의 품격을 높여주는 독서경영”이란 주제로 2009년 11월 17일(화) 11시 민석도서관 6층 다목적세미나실에서 가졌다.



### 1) 작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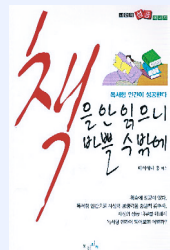


- 한국 독서경영 연구원 원장
- 삼성 등 기업 및 단체 독서 코칭 및 강의
- 공병호 경영연구소 다이애나 홍의 독서향기 칼럼연재
- (사)기회의 학습 평생교육원 강사
- 지식포럼 독서경영 전문 컨설팅
- 공병호, 이영권, 한국 카네기연구소가 추천하는 독서 경영 전문가
- 다양하면서도 효과적인 독서 경영 기법을 재미있게 전하면서 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느끼게 해 주는 진정한 독서 경영 전문가

### 2) 저서



- 진정으로 성공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 '책 읽기의 즐거움'에 빠져야 하는 이유와 실천방안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책으로 신입사원부터 CEO까지의 열정, 목표, 성공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21세기 글로벌 리더를 위한 실전 독서 매뉴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책을 읽어야지가 아니라 '책을 읽고 싶다고 생각하도록 이끄는 독서 지침서'이다. 이 책은 저자의 체험과 지인들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독서능력을 끌어올려주는 독서경영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기타 저서  
'다이애나 홍의 독서여행'  
'다이애나 홍의 독서향기' 칼럼연재

## 각종행사

### ▶ 제6회 독서토론회

동서대학교 민석도서관과 교양교육원에서는 교육의 내실화 정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책임기와 발표능력 강화를 위해 “제6회 독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9팀(18명)이 예선을 거쳐 4팀(8명)이 본선에서 열린 토론을 하였다.



### 시상자 명단

구분	전공	성명
1등팀	마케팅학전공 정보네트워크공학전공	김경찬 심재화
2등팀	영화과 영화과	이윤민 김지연
3등팀	이벤트컨벤션학전공 국제관계학전공	이이름 윤나래

- 1) 일시 : 2009년 10월 21 일(수) 14시
- 2) 장소 : 민석도서관 6층 다목적세미나실
- 3) 토론주제
  - 이주자, 인종주의 그리고 다문화주의 :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 4) 토론 선정 도서
  - 박병섭,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다문화주의 철학, 실크로드, 2008
  -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한겨레신문사, 2001
  -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 2009
  - 임지현,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2000
  -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양국제이해교육원, 『다문화사회의이해-다문화교육의현실과전망』, 동녘, 2008
  -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윤진 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2002

### ▶ 제8회 독후감공모전

도서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서비스 확대, 지식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독서 능력 향상과 면학을 장려하기 위한 도서관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올해도 2009년 도서관 100대 추천도서, 인성교양교육원 추천도서를 선정하여, 독후감 공모전을 가졌다.

### ▶ Multiplex 영화상영

민석도서관 Multiplex에서는 도서관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주제를 선정, 우수한 영화를 대학 구성원들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상영하고 있다.

- 9월 : 영화 속의 도서관을 찾아서
- 10월 : 액션, 스릴러의 세계
- 11월 : 한국 코믹, 드라마 영화 특선
- 12월 : 미국 코믹, 드라마 영화 특선



### ▶ “이단이란?” -도서 및 자료 전시-

“2009년 학원복음화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국내외 신종교운동 및 이단사이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보를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종교관련 문제들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돕고자 “이단이란?” 주제로 관련 도서 및 자료전시를 한다.



- 1) 내용 : 이단 관련 도서 및 자료 전시
- 2) 기간 : 2009년 11월 23(월) ~ 12월 18일(금)
- 3) 장소 : 민석도서관 4층 로비

### ▶ 2009년 외국도서 전시회



이 전시회는 평소 접할 기회가 적은 외국서적을 도서관에서 전시하여 교원 및 학생들에게 양질의 국외출판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도서 포인트제와 연계하여 학부와 개별 교수 단위로 필요 국외도서를 도서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 1) 전시기간 : 2009년 10월 26일(월) ~ 28일(수)
- 2) 전시장소 : 민석도서관 1층 U-갤러리



## 알랭 드 보통의 저서 행복의 건축

### | 이 한권의 책



동서대  
이효경 교수

**집**지에 나온 집, 너무 비싸 도저히 손에 넣을 수 없는 집에 사는 상상을 하다가 이내 슬픔을 느끼곤 한다. 혼잡한 거리에서 매혹적인 사람을 지나칠 때처럼, 책을 펼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 두 문장의 이 글로 나는 웃음 가득한 얼굴을 하고 그의 글을 탐닉하기 시작했다. 어느 때와 같이…….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 그의 예리하면서도 깊은 그리고 번뜩이는 통찰력을 좋아한다. 또한 누구라도 쉽게 공감하게 만드는 그의 사유(思惟)와 표현력을 사랑한다. 그의 글은 진지하면서도 유머러스하고 깊이가 있으며 섬세하다. 그렇기에 드 보통의 글을 읽을 때면 평소보다 곱절의 시간이 걸리곤 한다. 다음 글이 궁금해 바빠 책장을 넘기고 싶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을 음미하게 만든 그의 탓에 자주 걸리기 때문이라.

2007년, 드 보통의 저서 <행복의 건축(The Architecture of Happiness)>이 국내에서 번역 출간되자마자 주문을 했다. 며칠 후 책이 배송되어, 포장 박스의 접착테이프 부분을 칼로 끊을 때의 그 두근거림과 짜릿함.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 것이다.

나를 그렇게 달뜨게 만들었던 이유는 그의 이전 작품 <여행의 기술>과 <불안>을 읽으며 느꼈던 관심과 취향의 공감대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내 에너지를 모두 쏟아 부을 수 있으며 또한 그 에너지를 끊임없이 샘솟게 만드는 여행, 그리고 평생의 관심거리이며 동시에 고민거리인 심리학. 그에게도 이 두 영역은 뜨거운 에너지원이며 최고의 관심거리였던 모양이다. 그런데 내가 전공인 심리학만큼(어쩌면 그보다 더) 심취해 있으며, 배낭을 메고 떠나는 이유들 중 하나인 '건축'에 대한 책을 그가 낸 것이다.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드 보통에게 있어 행복의 건축이란 어떠한 것이며, 건축가가 아닌 그가 건축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해 견딜 수 없었고, 나의 견해와 비교해 보고도 싶었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건축가들이 자신의 세계에 너무 몰입하여 중요한 다른 것들을 보지 못 하는 것에 대해 작가는 건축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선과 입장에서 매우 객관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축가 르 꼬르뷔지에에 대해서도 그는 거침없는 비판을 가하였다. 르 꼬르뷔지에의 대표작 중 하나인 빌라 사보야가 실용적 정신을 가진 건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술적 동기에서 나온 비실용적인 건물이라는 것이다. 르 꼬르뷔지에를 비롯한 모더니즘 건축가들은 순수하게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접근 방법을 강조했지만, 그들과 그들의 작업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낭만적이었고, 따라서 그들이 지은 건물은 실용적인 집이 아니라 삶에 관한 이상화된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을 위한 무대로서 잉태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드 보통의 글을 읽기 전까지 내게 빌라 사보야는 불세출의 거장 르 꼬르뷔지에의 새로운 건축에 대한 선언이며 현대 서구 건축의 미적 정점이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새는 비합리적 설계는 상상도 못 했었기에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리하여 내게 또 하나의 과제가 생겼다. 다시 프랑스로 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일!

어쨌든 이 책에서 르 꼬르뷔지에는 이후에도 악역을 여러 번 맡는다. 그러나 드 보통이 아무리 서술이 뛰어난 글로 그를 비판했다 하더라도 내게는 여전히 최고의 거장들 중 한 명이며, 오히려 드 보통이 지나치리만큼 르 꼬르뷔지에를 의식했다고 느

껴진다. 이 책은 건축학도들이나 건축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르 꼬르뷔지에를 신랄하게 공격한 책으로 관심을 끌고 읽혀질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드 보통은 이를 예상하고 이슈화시키려 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내가 존경하는 이에 대한 공격이라 하더라도 그의 위트 있는 비판은 그를 도무지 미워할 수 없게 만든다.

이 책의 또 다른 매력은 우리가 건축을 보며 느끼는 감정들, 건축에 대해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을 일상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들로 쉽고 정확하게 비유하고 표현한 드 보통의 노력이다. 우리는 어떤 건물이나 심지어는 창문, 대문, 천장, 기둥 등 작은 장식 하나만을 보고 가보지도 않은 고대 이집트나 중세 유럽, 인도 등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그는 이것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해 준다. 세계나 차 넘새만으로도 어린 시절의 기억이 풀려나오듯이 선 몇 개의 각도에서도 문화 전체가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며, 건축가들은 우리의 이러한 연상 능력에 의존하여 장식하며 설계하는 것이라고…….

중이에 굵적거린 서툰 낙서조차 우리의 심리적 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데, 하물며 완성된 건축물이야 실로 무궁무진한 잠재된 생명력이 있지 않을까? 어떤 건축물이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 건축물을 보면서 희미하게 연상하는 생물이나 인간의 기질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건축물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그것이 살아 있는 형태일 경우에 우리가 좋아할 만한 특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묘사하는 대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다른 모습인 셈이다. 이처럼 건축물을 유기체의 속성으로 본 작가의 신선한 표현 방식에 무릎을 칠 수밖에 없다.

시대를 막론하고 건축이 우리 인간의 역사이자 문화로 자리 잡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그만의 언어로 풀어 설명해 준다. 초기 신화자들은 '읽기'보다 '보기'로 신의 충직한 종이 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인류가 성서보다 더 건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감각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들은 지성보다는 눈을 통해 받아들일 때 우리 영혼을 더 튼튼하게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우리는 복음을 연주할 때보다 타일의 배치를 볼 때 겸손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며, 성서보다 스테인드글라스 창에서 진절의 본성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내가 남미 국가들에서 보았던 수많은 교회 건축물들이 유럽의 그것들보다 훨씬 더 화려했던 이유가 바로 그래서였던 것 같다. 당시 하나님을 몰랐던 원주민들에게 신의 위엄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화려한 장식들과 하늘 높이 솟은 건축물만큼 좋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축물은 역사를 대변하기도 하며, 시대의 정신을 간직하기도 한다. 그래서 건축을 시대의 거울이라고도 한다. 건축을 보면 그 사회를 알 수 있고, 그 시대의 사상을 알 수 있으며, 그 시대의 문화적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알랭 드 보통은 이러한 건축을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이야기 하고 있다. 비록 완벽한 건축조차 우리를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데 극적인 작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먹고 자고 스쳐 지나가는 주변의 건축물들이 근원적인 아름다움을 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깨닫게 한다. 드 보통은 소설가이자 철학자이지만 이 책에서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지나치게 무겁지도 또한 가볍지도 않게 적당한 톤으로 풀어 나가며 건축의 문외한들에게도 늘 그 자리에 정물처럼 서 있던 건축물들이 호흡하며 대화하는 듯한 영감을 전달한다. 이 책은 내게 '행복의 건축' 뿐만 아니라 '행복의 독서'에 대한 의미까지 깨닫게 해주는 선물이었으며, 책을 소개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그 선물을 꺼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 알아봅시다

## ▶ 세계명문대학 강의 무료콘텐츠 이용법

민석도서관에서는 우리대학이 추구하는 교육내실화와 Global Campus 대학으로서의 교육환경 조성 일환으로 YouTube 및 iTunes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세계명문대학 유명교수들의 강의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 세계명문대학 강의 콘텐츠 이용안내 접근 방법

- 민석도서관 홈페이지/이용안내 란에서 이용

### 2) 유튜브 교육채널(<http://www.youtube.com/edu>)

: 100여개 대학의 강의 동영상 제공

① 유튜브 교육채널 접속 화면 (접속시마다 화면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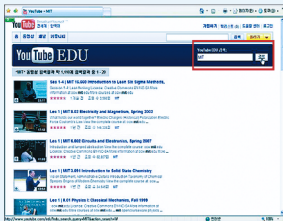
② 메뉴구성

- 디렉토리 메뉴 : 대학의 알파벳 순 배열과 대학이 제공하는 동영상 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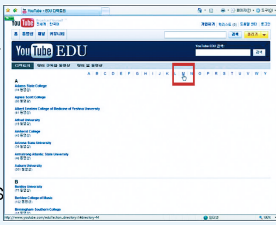
- 많이 구독한 동영상 메뉴 : 구독자가 많은 순으로 대학별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 많이 본 동영상 메뉴 : 많이 본 동영상 순으로 대학별 리스트(상단)와 동영상별 리스트(하단)를 제공합니다.

③ MIT 무료 강의 콘텐츠

- 키워드 검색 : 검색품에 "MIT"를 입력



- 디렉토리 검색 : 디렉토리 메뉴에서 알 파 벳의 "M"클릭 이동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를 찾아 클릭합니다.



- MIT에서 제공하는 강의 동영상 화면입니다. (우측의 나열된 동영상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3) 아이튠스(iTunes)

: 아이튠스 대학카테고리(iTunes U)를 만들어 170여개 대학 강의 콘텐츠를 무료제공

① iTunes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주소 입력란에 다음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른다.

주소 : <http://www.apple.com/kr/itunes/download/>

- 애플 iTunes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지금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설치

② iTunes 대학 강의 콘텐츠 이용

- iTunes 메인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대학 강의 자료 메뉴 : iTunes U  
- iTunes STORE / iTunes U에서 콘텐츠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 무료 강의 콘텐츠

- 검색 : 주제어 입력(yale)

- 예일대학교 강의 콘텐츠 자료는 iTunes U 카테고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예일대학교 강의 콘텐츠 전체를 보려면 iTunes U 카테고리의 "See All" (See All)를 클릭합니다.



## ▶ 희망도서 신청 안내

- 1)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center.dongseo.ac.kr>)에 접속하여 도서관서비스 -> '도서구입신청/조회' 클릭
- 2) 로그인 화면이 표시되면, 학번과 패스워드 입력 (패스워드 초기값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
- 3) 로그인 후 '신청도서 구입신청' 란을 작성

## ▶ 대출책수 및 기간

### 1) 대출책수 및 기간

구분	책수(책)	기간(일)
학부생	5	14
대학원생	7	14
직원, 조교, 시간강사	7	14
전임강사 이상교수	20	90

※ 대출연장은 1회(7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2) 대출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center.dongseo.ac.kr>)를 활용하여 원하는 자료를 검색한다.
- 딸림자료가 있는 자료를 대출하고자 할 경우 3층 대출데스크를 이용한다.

### 3) 대출기간연장

-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My Library 대출연장/조회 원하는 책 선택 대출연장)를 활용하여 대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대출연장기간은 연장신청 한 날로부터 시작 된다.

### 4) 대출자료예약

- 도서관 홈페이지(소장자료검색 원하는 자료 선택 상세정보보기 예약신청)를 활용하여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 예약된 도서는 반납 즉시 예약신청자에게 e-mail로 통보하므로 반드시 도서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관리에 e-mail 및 전화번호를 입력 한다.

## 자료 기증 안내

- 도서관에서는 자료기증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기증대상 : 단행본, DVD, CD-Rom, 일반논문, 회의논문
- 접수처 : 동서대학교 민석도서관 4층 사무실

##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 안내

- 국제세미나실 : 69석    • 다목적세미나실 : 80석    • 회의실 : 10석
- 정보교육실 : 60석    • Multiplex : 50석
- 스타디움 : 6인실 2실, 12인실 4실, 15인실 1실  
(기자재가 있는 7실은 도서관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

※실 사용 전 반드시 미리 예약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실 사용 문의 : Tel. 051-320-2065

## 2009년 자료를 기증해 주신 분들

(2009년 6월 ~ 11월까지)

- | 설립자·장성만 | 총장·박동순
- | 교수  
조경미 구종상 이정수 정택진 박수홍 윤은경 이진호
- | 직원  
배동환 박광중 김경옥 김진호 나가성 박현주 안상두  
안재근 안혜진 고 훈
- | 학생  
김성근 정광호 구수현